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문의 : 창조경제산업연구부 이강진 연구위원
(063-280-7141)
- 담당실장 : 연구실장 김보국 연구위원
(063-280-7161)

보도시점 : 2016년 8월 2일(화) 12시부터

사회적기업 8년새 7배 증가 ...일자리제공형 74%

전북연구원 '전북 인포그래픽스' 2호 발간

- 전북의 사회적기업은 99개로(전국 4위, 전국비중 6.3%) 8년새 7배가 증가하였고 사회적약자를 돕는 '일자리제공형' 이 74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2일 발간된 '전북 인포그래픽스' 2호에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이 지난 8년동안 7배가 증가하였고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로는 '일자리제공형' 이, 산업유형별로는 '농식품기업' 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고용창출이 가장 큰 분야는 '가사간병' 이며 업체당 매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'제조유통'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- 지난 8년(2008년~2016년) 사이 전북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은 14개에서 99개로 7배 성장하였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전국대비 6.3%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에서 서울, 경기, 경북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로는 '일자리제공형' 이 73개(73.7%)로 가장 많고 산업유형별로는 농식품(27개), 환경(19개), 문화·관광·예술·

체협(16개) 순으로 나타났다.

- 사업체당 인력고용이 가장 많은 분야는 가사·간병(58.5명)이며 다음으로 환경(42.9명), 교육(35.5명) 순이며 사업체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제조업·유통(18억8,500만원)이며 다음으로 농식품(12억7200만원), 가사·간병(11억9,400만원) 순으로 나타났다.
- ‘전북 인포그래픽스’는 전북연구원이 전북의 경제 및 사회 관심 통계를 분석하여 격월로 발간하며 전북연구원 홈페이지와 메일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.